

<컴패션 뉴스레터 1965년 5-6월호>

로버트 모건(Robert Morgan) 여사, 명예 교장으로 임명되다.

2월 19일 서울 영진여자직업훈련학교(Yung Jin Vocational Training School)에서 제1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 학교는 고학년의 여학생들이 장차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컴패션에서 운영합니다. 60명의 여학생들이 이 과정을 마쳤으며, 이제 그동안 훈련을 받은 다양한 사무 또는 가사 관련 업무를 통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졸업식은 컴패션의 한국 대표인 로버트 모건(Robert Morgan)의 아내, 조이스 모건(Joyce Morgan) 여사가 영진여자직업훈련학교의 명예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행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모건 여사는 위 사진에서 학교의 교장인 이(Lee) 여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리포트

컴패션 한국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모건(Robert Morgan) 목사의 아내, 조이스 모건(Joyce Morgan) 여사는 다음과 같이 컴패션의 지지자와 친구들에게 선교사로서의 다양한 임무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아내의 역할은 다양한 책임과 주제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교지의 위치와 가정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저는 저희 네 명의 자녀가 모두 취학연령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노력 덕분에 저는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지어를 아는 것은 이곳 사람들과 즉각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며, 이것은 이 나라에서 우리의 사역의 한계를 시험할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좋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컴패션의 문서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저에게 작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보육원에서 사용할 <가스펠 라이트 선데이 스쿨(Gospel Light Sunday School)> 교재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의 일부는 이 자료들의 영어판을 번역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작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축복받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문서 선교부는 이미 두 권의 무디 신학대학교 성경통신과정 교재인 <굿 뉴스(Good News)>와 <퍼스트 스텝스 인 더 크리스천 페이스(First Steps in the Christian Faith)>를 한국어로 출판했으며, 이 책들은 우리의 개척 전도사들과 교회, 고아들, 그리고 다양한

교단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진직업학교의 교장이라는 명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기술을 배우고 성숙해 나가며, 신앙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제가 매주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소녀들이 전후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3)

(사진)

영진직업학교 첫 졸업식에는 컴패션 선교사, 주한미군 대표, 그리고 다른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60명의 소녀들이 이번 졸업식을 맞아 졸업했습니다.

모건 목사님이 원장님들과 지역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컴패션의 한국 대표인 로버트 모건 목사님은 보육원 원장님들과 지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역별 바이블 콘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건 목사님은 원장님들에게 성경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린이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원장님들은 각자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고, 이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컴패션의 사역을 크게 강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보육원 어린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원장님들과 전도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모건 목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50여 명의 보육원 원장들과 지역 회의를 진행하는 로버트 모건 목사님(왼쪽 의자에 앉은 분).

섬김의 기회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 전임 기독교 사역에 관해 말씀하신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의 긴급한 필요에 대해 기도하며 고려해 보시고, "Compassion, Inc.,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로 편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서울사무소의 사역실장(Business Manager):** 서울 사무소의 정규직 사역실장으로 일할, 선교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철두철미한 사업가 정신'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목회자 또는 자격을 갖춘 평신도도 가능합니다. 경영 관리 및 인사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언어를 배울 의지가 있는 30세 미만의 부부를 선호합니다.
- **보상?:** 컴패션은 23,000명의 고아와 새 교회를 개척 중인 40명에 가까운 현지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 리더십을 준비하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지원합니다. 가스펠 라이트 선데이 스쿨(Gospel Light Sunday School)의 교재 및 무디 통신학대학교 성경통신과정을 출판합니다. 그 외 다른 많은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과의 좋은 교제와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 약간의 "두통거리"와 문제들도 겪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자원 관리 이사(Stewardship Director):** 컴패션의 청지기 사역 및 개발 활동을 조직하고 발전시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적합한 배경을 가진 분이어야 하며, 일부 여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분은 시카고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여성 사무직 직원:** 타이핑 및 일반 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카고 사무실에서 쾌적하고 보람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크 톰슨(Mark Thompson)은 애너하임 커뮤니티 교회(Anaheim Community Church)에 다니는 8세 소년입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그의 편지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담당 목사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크를 지도하고 있는 존 R. 에만스(John R. Emmans) 목사님은 스완슨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마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크의 선물은 매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래 실린 에만스 목사님의 편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국의 고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편지 이미지)

1964년 크리스마스

에만스 목사님께,

이 2달러는 예수님께 드리는 제 생일 선물의 절반입니다. 이 돈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세요.

마크 톰슨 올림

로 덕분에 몸이 많이 회복되었고, 지난 몇 주간은 사무실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한참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바이블 콘퍼런스가 끝났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컴패션 후원 전도사들과 172명의 보육원 원장님들, 그리고 수백 명의 일반 성도들이 4일간 집회에 참석하면서 큰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인트 폴(St. Paul)의 베델신학교(Bethel Theological Seminary) 학장인 고든 G. 존슨(Gordon G. Johnson) 박사께서 전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모건(Morgan) 목사님, 그리고 한국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영적 배터리가 재충전되고,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깊어진 헌신으로 각자의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현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컴패션> 다음 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컴패션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에버렛 F. 스완슨

(사진)

스완슨 목사(왼쪽)가 콘퍼런스의 주 강사인 고든 G. 존슨 박사와 함께 바이블 콘퍼런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컴패션 이사회에서 시카고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컴패션 이사회의 프랭크 S. 우드리프(Frank S. Woodliffe) 이사장과 로버트 포사이스(Robert Forsyth) 재무 담당 이사가 시카고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은 시카고 사무소에서 하루를 보내며 컴패션의 업무 절차를 검토하고, 컴패션의 중앙 운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프랭크 S. 우드리프 이사장은 그가 받은 인상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컴패션의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만난 이후로 저는 여러분을 자주 떠올릴 정도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에 매우 헌신 되어 있으며, 컴패션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2년 전 회심한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인 슐텐츠(Jane Scholtens, 시카고 사무실의 어린이 배정 담당 직원) 씨가 6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인 씨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인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팻 밀리건(Pat Milligan, 스완슨 목사님의 비서),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지만,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프랭크 S. 우드리프(Frank S. Woodliffe)

서점 수익금으로 고아들을 지원합니다.

아담 켄저(Adam Quenzer) 여사는 캔자스주 바진(Bazine)에서 I.H.S. 서점을 운영하는 행복한 기독교 여성입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의 컴패션 보육원에 있는 귀여운 어린 소년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켄저 여사는 자신과 그녀의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켄저 여사는 몇 년 동안 한국인 “아들”을 후원하는 축복을 누렸지만, 아직 후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녀가 누리는 축복은 더 커졌습니다. 자신이 후원하는 고아를 통해 그녀는 보육원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아직 후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원을 받지 못하는 고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그녀의 재정적인 자원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켄저 여사는 남편에게 기독교 서점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고,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서점을 위해 지하실 한 구석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모든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서점에는 기독교 선물, 책, 음반 등이 가득 찬 테이블이 놓여 있습

- Compassion Orient Tour, Box 880, Blenheim, Ontario, Canada

비전트립 중에 여러분이 보게 될 모습들입니다.

(사진)

- 여러분이 후원하는 고아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동일 것입니다.
- 서울의 명소 중 하나인 남대문입니다.
-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농부는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کمپا션 우체통

저는 복음을 심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후원자님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물질로 지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전도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깊이 심어서 잘 자라게 하겠습니다.

- 황갑순(Hwang Kap Soon) 전도사

보육원 원장의 감사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께, 기관에 주어진 국내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일이 우리 사역의 외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의 영생을 위한 사역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1960년 4월 16일 저희 봉헌식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신 열정적인 말씀을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건물도 언젠가는 모두 낡을 것이며,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속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 힐사이드 크리스천 보육원(Hillside Christian Orphanage), 임성운(Lim Sung Un) 원장

한국 고아들을 걱정하는 후원자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께, 미국에 있는 우리는 배고픔과 결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보

육원 사역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복음과 함께 건강, 교육, 사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목사님과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뉴저지주 페드릭스타운(Pedrickstown), A. P.

후원자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부산 헤브리 러브 보육원(Pusan Heavenly Love Orphanage)의 원장님이 보낸 편지는 그들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놀라운 감사로 가득해 올해 특히 좋았습니다. 저는 내년에 목사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Monrovia), H. L. 부인

학생의 감사

친애하는 후원자님께,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지원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한 후원자님의 끊임없는 후원과 기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항상 후원자님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 황재구(Hwang Jae Koo) 학생